

01 학 력 평 가 와 모 의 평 가

학평과 모평은 다른 시험입니다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응시하나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학평	3
03 모평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누가 내고 누가 보나** — 학평과 모평을 나란히 놓은 표
- ◆ 학평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 목적에 「대입 예측」이 없습니다
- ◆ 모평은 **수능을 내는 곳이 내는 시험** — 그래서 수시 판단은 6월·9월로
- ◆ **10월 학평은 다시 재학생만 봅니다** — 「올랐다」로 읽으시면 안 되는 까닭

01 · 먼저 사실부터

주관도 응시자도 다릅니다

「모의고사 봤어요」라는 한 마디에 사실 두 시험이 섞여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수능 모의평가(모평)입니다. 주관하는 곳이 다르고, 보는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성적표를 잘못 읽습니다.

	학평	모평
누가 냅니까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시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가 봅니다	주로 재학생	졸업생도 봅니다
언제	3·5·7·9·10월 등	6월 · 9월
성격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수능을 내는 곳이 내는 시험

둘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학평은 재학생만, 모평은 졸업생까지. 그래서 같은 실력이라도 학평 등급이 모평보다 좋게 나오는 일이 흔하다.

같은 아이가 같은 실력으로 봐도 두 시험의 등급이 다르게 나옵니다. 실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견주는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 및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안내(2026년 8월 기준).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

02 · 학평

학교가 보는 시험입니다

학평은 입시 기관이 만든 시험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시행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이렇습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시행한다** — 학업성취도 진단,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로지도가 목적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뜻
학업성취도 진단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가 수업을 조정하는 데 씁니다
진로지도	상담 자료로 씁니다

「대입 예측」이 목적에 없습니다. 학교가 **지금 상태를 재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학평 등급을 「내 수능 등급」으로 바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졸업생이 빠진 집단에서 나온 등급입니다.

수능에는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졸업생은 대체로 준비를 더 한 집단입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이 밀릴 수

얼마나 밀리는지는 해마다 다르고 과목마다 다릅니다. 「몇 등급 밀린다」고 딱 잘라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출처: 시·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안내. 시행 횟수와 달은 학년과 시도마다 다릅니다.

03 · 모평

수능을 내는 곳이 맵니다

모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채점하고 시·도 교육청이 시행을 관리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바로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출제 결	수능과 같은 결로 나옵니다
응시 집단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난이도 조절	평가원이 수능 난이도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셋째 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평가원은 모평 결과를 보고 수능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모평이 어려웠다면 수능은 그보다 쉬울 수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평 난이도로 수능을 짐작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평은 예고편이 아니라 시험 삼아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도 학평보다 가깝습니다

출제 기관이 같고 응시 집단이 수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위치를 재는 데는 학평보다 모평이 낫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판단하실 때 보실 것은 6월과 9월 모평입니다. 3월 학평 성적으로 원서를 짜시면 안 됩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시행 공고.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서 짐작한 저희 판단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어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험	이렇게 보십시오
3월 학평	출발선 확인 — 겨울에 무엇이 됐는지
6월 모평	수시 방향을 잡습니다 — 졸업생이 들어온 첫 성적
9월 모평	원서 직전 마지막 자료
10월 학평	마무리 점검 — 다시 재학생만입니다

맨 아랫줄을 조심하십시오. 10월 학평은 다시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라 9월 모평보다 등급이 좋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걸 「올랐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견주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성적표를 받으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이번 시험이 **학평인지 모평인지** 아는가
- ☐ 학평은 **주로 재학생** 만 본다는 것을 아는가
- ☐ 모평에는 **졸업생이 들어온다** 는 것을 아는가
- ☐ 학평 등급을 **수능 등급으로 읽고** 있지 않은가
- ☐ 수시 판단을 **6월·9월 모평** 으로 하고 있는가
- ☐ 10월 학평이 **다시 재학생만** 인 것을 아는가
- ☐ 이번 시험의 **범위** 가 어디까지인지 아는가
- ☐ 지난 시험과 **같은 조건** 인지 확인했는가

여덟째가 이 시리즈 전체의 기준입니다. 조건이 다른 두 시험을 견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3월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으로 대학을 말하는 곳도 많습니다. 3월 학평은 재학생만 보고, 배운 데까지만 나오는 시험입니다. 거기서 대학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성적표를 정확히 읽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두 시험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학평 등급에서 수능은 몇 등급쯤 떨어지나요?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떨어지는 폭은 과목마다, 등급대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졸업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해마다 다릅니다.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 졸업생이 들어오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그 영향이 큼니다 — 졸업생이 상위권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평 2등급이니 수능도 2등급」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6월 모평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십시오.

6월 모평이 첫 실제 자료입니다.

Q.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면 수시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시가 더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수시에는 수능최저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부만 보는 전형이 그것입니다.

다만 최저가 걸린 자리를 고르실 때는 모평 성적이 기준이 됩니다. 못 맞출 최저를 걸어 두면 그 장은 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판단은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최저가 있는 자리를 몇 장 쓸 것인가」입니다.

이건 따로 다른 편(B2·M6)이 있습니다. 모평 성적으로 여섯 장을 어떻게 나눌지를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학평은 재학생만, 모평은 졸업생까지 봅니다. 수시 판단은 6월·9월 모평으로 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평가원 시행 공고와 시·도 교육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과 응시 대상은 해마다·시도마다 다르다.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범위도 시험마다 다르다.